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13/19℃ 목포 13/18℃ 여수 13/16℃
단기 4343년 (음력 3월 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54호 1판 2010년 4월 21일 수요일

시도지사 대진표 짜졌다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한나라〉 강운태〈민주〉 장원섭〈민노〉
윤난실〈진보〉 이병완〈참여〉 정찬용〈무소속〉

●전남지사 후보

김대식〈한나라〉 박준영〈민주〉 박웅두〈민노〉
김경재〈평민〉

한나라당이 지난 19일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전남도지사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6·2 지방선거 시도지사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이 광주시장 경선 후유증으로 재심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조만간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여 후보들은 본선 전략 마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관련 기사 3·4·5면〉

2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에는 한나라당 정용화, 민주당 강운태, 민주노동당 장원섭, 진보신당 윤난실,국민참여당 이병완, 무소속 정찬용 예비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민주당 텃밭인 만큼 강운태 후보의 '독주'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40대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의 선전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정용화 후보 측은 '지역 발전론'을 제시하며 여권의 힘 있는 후보임을 부각시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소 20% 이상의 득표를 노리고 있다.

강운태 후보는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건설, 이명박 정권심판 및 재집권 발판 마련 등을 내걸고 뛰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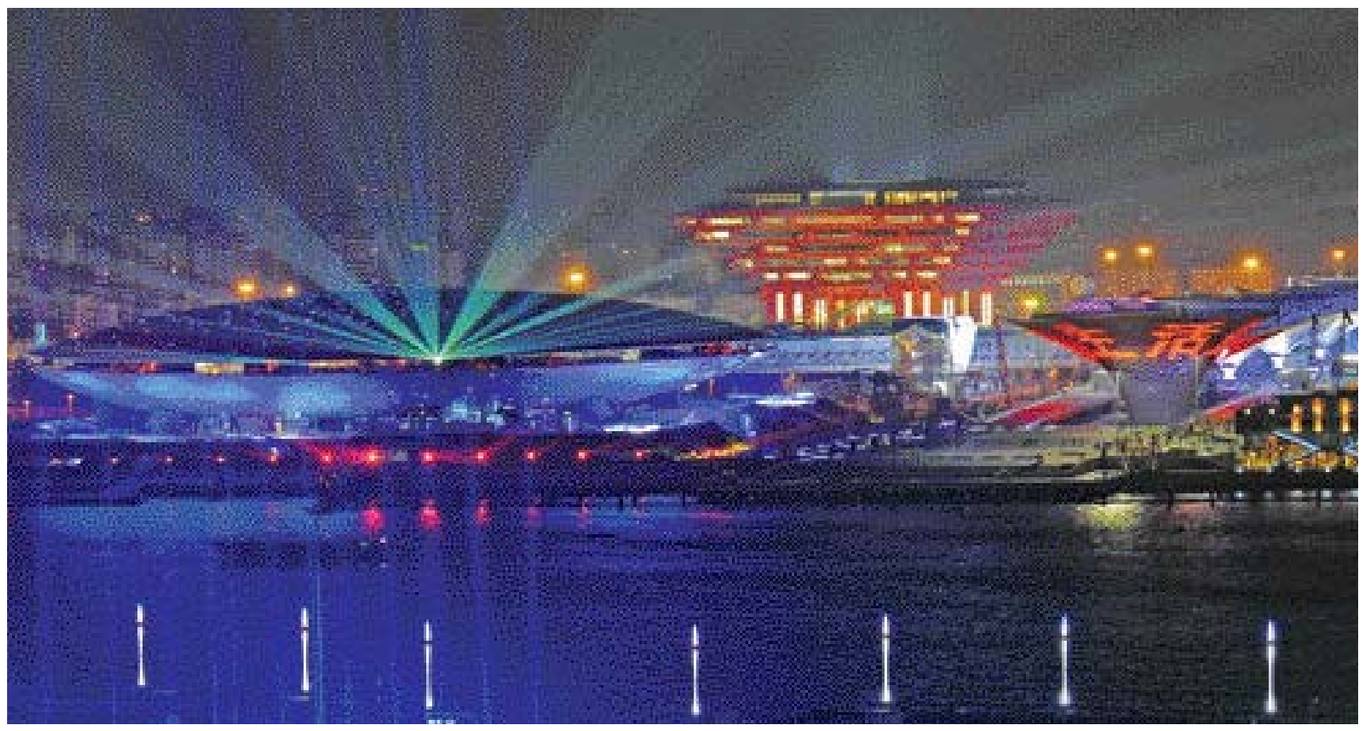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참여당 이병완, 민노당 장원섭, 진보 신당 윤난실, 무소속 정찬용 후보 측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견제할 '대안 세력'을 키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병완 후보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인사수석을 지낸 정찬용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진보 신당 윤난실 후보도 민주노동당, 참여당, 무소속 측에 '반 민주연대'를 제의하고 있어 '민주 대 반 민주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기류다.

전남지사 선거에는 한나라당 김대식, 민주당 박준영, 민주노동당 박웅두,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 등이 '한판 대결'를 벌인다.

박 후보는 '3선' 고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한나라당 전남도당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 경선을 통해 선출된데 힘입어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하고 있다. 박웅두 후보는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김경재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에서 평화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정가 관계자는 "이번 6·2 지방선거 광주시장 관전 포인트는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의 연대 움직임"이라며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는 한나라당과 평화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하이엑스포 화려한 조명 2년여를 앞둔 여수 엑스포 준비가 총체적인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 개막하는 중국 상하이 엑스포 주요 전시관들이 20일 화려한 조명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전교조 교사 1년만에 927명 줄었다

공립고 가입률, 사립고보다 높아

광주·전남지역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가입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립고 교사의 전교조 가입률이 사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련기사 2면〉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전교조 가입 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월 기준 광주의 전교조 교사수는 3755명으로, 전년 3월 4007명보다 6.3%(252명)가 줄었다.

전남도 전년 6830명에서 올해 6155명으로 9.8%(675명)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국 16개 시·도의 전교조 교사수는 전년보다 8210명이 줄어든 6만408명으로, 평균 감소율은 11.9%다. 전국 16개 시·도별 감소율에선 광주가 가장 낮았으며, 전남은 13번째였다.

광주지역 고교 중 전교조 교사수 상위 10개 학교는 모두 공립이었으며, 가입교사가 가장 많은 A고교는 전체 교원 94명 중 78명(83%)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반면 사립고교인 동아여고·인성고·서석고·설월여고 등은 전교조 가입교사가 한명도 없었으며, 대성여고 1명·송원고 2명·동성고 3명 등 사립고의 전교조 교사수가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남지역도 전교조 교사 수 상위 10개 고교 중 공립고는 6개교였다. 공립인 전남의 모 여고는 전체 교사 51명 중 전교조 교사가 41명으로 가입률(80.4%)이 가장 높았다.

사립고교인 장성고와 창평고·영광해룡고·전남예술고 등은 전교조 교사가 없었다.

한편 전교조는 20일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9일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 금지를 결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녹십자 화순공장 독감백신 첫 수출

녹십자가 600만달러(한화 67억여원) 규모의 계절독감백신 '지씨플루(GCFlu) 주'를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PAHO(범美보건기구)에 공급한다.

녹십자는 20일 "PAHO측이 애초 1200만달러 규모의 계절독감백신을 요구했으나 올해 다가올 국내 독감시즌을 대비한 물량 확보를 위해 절반만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지난해 국내 최초 독감백신 생산에 성공해 세계에서 12번째로 독감백신 자급자족을 실현한 데 이어 세계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녹십자 화순백신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수출되는 백신은 소아용이며, 올해 2분기까지 납품된다.

이와 함께 녹십자는 독감백신의 WHO 승인(UN prequalified vaccines)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채희종기자 chae@

보호감호제 6년만에 부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넣기로 의결하고 내달까지 시안을 완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달중 시안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대검찰청과 다른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감호제의 형법 삽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법개정특위가 만든 시안에 특별한 하자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법무부도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보호감호제 재도입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시안에는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누범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보호감호의 적용 대상 범죄와 상습범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다.

형사법개정특위는 앞서 2008년 소위원회에서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을 의결했으며,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달 16일 흉악범들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